

IV.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4. 동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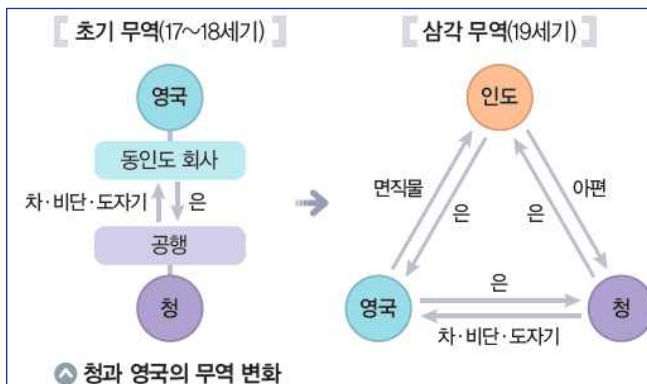
1. 중국의 국민 국가 건설 (아편 전쟁 ~ 양무 운동)

• 아편 전쟁의 배경

- (1) 18세기 후반, 청과 영국은 광저우 한 곳을 통해 공행 무역을 진행
- (2) 차, 도자기 등의 수입으로 무역 적자가 컸던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여 적자를 충당
- (3) 아편 밀수입이 늘어나자,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증가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은이 해외로 유출되어 재정 곤란

• 아편 전쟁과 청의 개항

- (1) 청은 영국의 아편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해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
- (2) 청이 아편 밀무역을 단속하자, 영국은 아편 소각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킴 (**제1차 아편 전쟁**, 1840)
- (3) 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 (불평등 조약)
- (4) 난징 조약 체결 이후에도 영국은 청과의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
 - ① 이에 애로호 사건을 구실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프랑스도 자국 선교사 피살을 구실로 영국과 연합해 청을 공격 (**제2차 아편 전쟁**, 1856)
 - ② 청은 영·프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 (항구 추가개방,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크리스마스 포고 허용)
 - ③ 러시아는 조약 체결을 주선한 대가로,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넘겨받음



< 난징 조약 >

- 영국 국민은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에 거주할 수 있고 박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상업을 할 수 있다.
- 청은 영국에게 홍콩을 넘기고, 영국의 법률로써 통치할 수 있다.
- 앞으로 공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폐지한다.



• 태평천국 운동 (1851~1864)

- (1)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가 배상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면서 농민 생활 악화
- (2) 홍수전 : 이런 상황에서 청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킴 (1851)
- (3) 정책 : 남녀평등, 토지의 균등 분배(천조전무제도)
- (4) 확장 : 농민의 지지를 받고, 세력을 크게 확대하여 난징을 점령
- (5) 그러나 중국변, 이홍장 등 한인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외국 군대에 의해 진압 (1864)

• 양무운동 (1861~1895)

- (1) 청은 아편 전쟁, 태평천국 운동 과정 속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깨달음
- (2) 이에 한인 관리들은 중체서용을 내세우며 양무운동을 추진 (중체서용: 중국의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수용하자!)
- (3) 내용 : 군수공장 설립, 서양무기 도입 → 근대적 육군·해군 양성. 신식학교 설립, 광산·제철산업 발전
- (4) 한계와 실패 :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청일전쟁 패배로 한계가 드러나 종료

2. 일본의 국민 국가 건설과 제국주의화

• 일본의 개항

- (1) 페리 함대의 개항 요구 :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페리 제독이 개항을 요구
- (2) 미일화친조약 (1854) : 에도 막부는 페리 함대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개항
- (3) 미일수호통상조약 (1858) : 시모다, 하코다테 항구 외에 4개 항구를 개항한다.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 최혜국 대우, 영사 재판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

• 메이지 유신 (1868~)

- (1) 배경 ① 개항 과정에서 미국에 굴복한 막부의 권위가 크게 추락
② 외국 상품 유입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민 불만은 고조
- (2) 메이지 유신(1868) : 일부 다이묘, 하급 무사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세운 후, 근대적 개혁을 추진
 - ①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 시도 :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을 없애고,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 중앙 집권 체제 마련
 - ② 사회 개혁 : 신분제 폐지, 징병제·신식교육 실시
 - ③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 서양 문물과 제도를 살펴보고,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파견
- (3) 자유민권운동
 - ① 일부 지식인들이 헌법 제정, 의회 설립을 요구하며 벌인 운동
 - ②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면서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립 → 근대적 입헌 군주제 국가의 모습
⇒ 그러나 천황을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고 절대 권력을 부여 (천황 권력 >>> 백성의 민권)

• 일본의 제국주의화

- (1) 일본의 대외 팽창 :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을 개항하고(강화도 조약), 류큐를 병합
- (2) 청일전쟁 (1894)
 - ① 조선을 두고 청과 대립하던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
 - ②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차지
→ 배상금으로 근대 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
- (3) 러일전쟁 (1904)
 - ① 러시아가 한반도·만주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일본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러일 전쟁을 일으킴 (일본 승리)
 - ② 포츠머스 조약 체결 : 한반도·만주에서의 우월적 지위 인정
→ 그 뒤, 대한 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남만주로 세력을 확대

3. 중국의 국민 국가 건설 (변법자강운동 ~ 신해혁명)

• 변법자강운동 (1898)

- (1) 청일전쟁 이후, 일본과 서양 열강이 중국의 영토와 이권을 빼앗자, 중국인들의 위기감은 고조
 - (2) Kangyuei, 량치차오 :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아 변법자강운동 전개 (황제 지지)
 - (3) 내용
 - ① 정치제도 개혁 : 입헌 군주제, 의회 제도 도입
 - ② 사회 개혁 : 과거제 폐지, 서양식 교육 도입
 - ③ 신식군대 육성 도모
- ⇒ 그러나 보수파의 반발로 10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나며 종료

• 의화단 운동 (1899~1901)

- (1) 배경 : 서양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외세에 대한 중국인의 적대감 증대
- (2) 활동 : 구호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 반외세운동을 전개하며, 철도 전신을 파괴하고 교회 등을 공격
- (3) 의화단이 베이징까지 진출해 서양 세력을 위협하자, 권력을 잡고 있던 보수파가 의화단을 이용해 서양 열강을 몰아내려고 시도
- (4) 그러나 영국,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을 진압
- (5) 결과 : 청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

• 정부의 입헌 개혁(1905~1910) : 황실을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 도입 등 개혁을 추진 → 실패

• 신해혁명 (1911)

- (1) 청 정부의 무능으로, 중국에서는 혁명의 움직임이 확산
 - (2) 쑨원(손문) :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내세우며 혁명 운동을 전개
 - (3) 이 시기 청 정부는 (의화단 운동 배상금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 자본을 빌리려고 시도
 - ① 이에 반발한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고, 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려고 시도
 - ② 쑨원 등 혁명 세력과 연결된 우창의 신식 군대가 봉기를 일으키고, 여러 지역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신해혁명, 1911)
 - (4) 중화민국 수립 (1912)
 - ① 1912년, 혁명파는 난징에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여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 수립 (1912.1.1.) + 「중화민국 임시약법」 제정
 - ②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혁명을 진압하려고 했으나, 그는 청 정부를 배반하고 혁명파와 손을 잡아 황제를 퇴위시킴으로써 청은 멸망
 - ③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에 올라 권력을 잡자, 태도를 바꿔 혁명파를 탄압 (자신이 황제가 되려함.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철회. 직후 사망)
- 이후 중화민국은 지방 군벌 간 계속된 다툼으로 큰 혼란에 빠짐



▲ 신해혁명의 전개 이민족 출신 왕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신해혁명의 결과 한족 중심의 국민 국가가 건설되었다.



4. 한국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개항	(1)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의 교류 요구를 거부 (청, 일본 등과의 전통적 외교 관계만 유지) (2) 일본 :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메이지 정부를 세운 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문호개방 강요 ↳ 운요호 사건 : 일본배 운요호가 강화도를 포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해 방화·약탈·살인을 저지른 사건 (3) 강화도 조약 (1876) :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 (일본의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인정)
개화	(1)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사절단 파견 : 일본에 수신사, 조사사찰단 + 청에 영선사를 파견해 정보·기술을 배워오도록 함 (2) 신식군대 별기군 설치 → 구식 군인들은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임오군란을 일으킴 (1882) (3) 위정척사 운동 : 보수적인 유생(유학 선비)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개항과 개화정책 추진에 반대 ↳ 위정척사 :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근대화	(1) 갑신정변 (1884) :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아 적극적 근대화 추진 시도 (청의 개입으로 실패) (2) 동학 농민 운동 (1894) ① 외세를 배격하고 잘못된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며 전라도 일대 장악 ②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어 개혁을 약속받고, 전라도 일대에서 개혁을 추진 (3) 갑오개혁 (1895) 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과거제·신분제를 폐지하는 등 근대적 개혁을 추진 ② 군국기무처를 설치해 추진했으며, 갑신정변·동학농민운동 당시의 개혁 요구를 일부 반영 ⇒ 그러나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개혁이 중단 (아관파천 :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이동)
국민 국가 건설 운동	(1) 독립협회 (1896~1899) ① 자주국권운동, 자강개혁운동 등 전개 (독립문 건립) ② 관민 공동회에서 국정 개혁 내용을 담은 「헌의 6조」를 결의 (관+민+공동) ③ 근대적 의회 설립 추진 (2) 대한제국 수립 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 후,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 대한 제국을 수립 ②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③ 광무개혁 : 지계 발급, 군제개혁, 산업육성, 인재양성 등의 개혁을 실시

대한국 국제	대일본 제국 헌법	중화민국 임시 약법
1조 대한민국은 세계가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2조 대한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5조 대한민국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한다. 6조 대한민국 황제가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만국 공법을 펼쳐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특사·감형 등을 명한다.	1조 일본 제국은 대대로 이어온 천황이 통치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23조 일본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않는다.	1조 중화민국은 인민의 조직이고, 주권은 인민 전체에서 나온다. 5조 인민은 종족, 계급,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 6조 인민은 이하의 각종 자유권을 향유한다.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구금, 심문, 처벌할 수 없다. …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V.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1. 제1차 세계 대전과 국제 질서의 변화

1. 제1차 세계 대전

•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

- (1)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동맹을 반복
- (2) 삼국동맹 : 독일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 이탈리아
- (3) 삼국협상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4) 발칸 반도의 상황
 - ① 유럽의 화약고 : 강대국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
 - ② 대립 : 범슬라브주의(러시아+세르비아 중심) vs 범게르만주의(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중심)

• 전쟁의 발발

- (1) 발칸반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
- (2)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 ⇒ 이에 삼국동맹·삼국협상에 얽힌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잇따라 전쟁에 가담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

• 전쟁의 전개

- (1) 동맹국 : 독일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 불가리아 + 오스만 제국
- (2) 연합국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이탈리아 + 일본 (이탈리아 : 연합국 측에 참전 시, 영토를 준다는 영국의 약속으로 연합국에 가담)
- (3) 총력전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군인뿐만 아니라 후방의 국민까지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
- (4) 미국의 참전
 - 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에 대항해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
 - ② 독일 잠수함이 중립국 미국의 선박까지 공격하자, 미국은 연합국으로서 전쟁에 참가
- (5) 러시아의 이탈 :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이탈 →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쳤으나 실패

• 전쟁의 결과

- (1)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선포 (바이마르 공화국)
- (2) 이후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은 종료 (1918)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	미국의 참전
제1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발칸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위기가 감돌았다. 이를 빚대어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렀다. 원래부터 발칸반도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 종교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특히 19세기부터는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가 등장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러시아, 세르비아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교전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독일 정부를 항복시키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 윌슨 대통령의 의회 연설(1917.4.2.) -

2. 러시아 혁명

• 러시아 혁명의 배경 (1905년 혁명)

- (1) 러시아의 상황 : 19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증가
- (2) 자유주의 사상 +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지만 전제정치의 억압은 오히려 심화
- (3) 러일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민중의 불만도 고조
- (4) 1905년 혁명 ①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제 정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 전개
② 군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 발생 (피의 일요일 사건)
- (5) 그 결과, 입헌 정치 ·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차르의 헌법 제정 · 의회 설치를 약속
⇒ 그러나 별 성과 없이 제1차 세계 대전으로 개혁은 중단

• 2월 혁명

- (1)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러시아에서 많은 인명 피해 + 심각한 경제난 발생 → 1917년 2월, 러시아의 노동자 병사가 중심이 되어 봉기
- (2) 이들은 소비에트(노동자 병사 대표자 회의)를 조직하여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임시 정부를 수립 (1917.2.)

• 10월 혁명

- (1) 임시 정부는 민중의 뜻과는 달리 전쟁을 지속
- (2)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통해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혁명정부를 수립 (1917.10)

• 소련의 수립

- (1) 실권을 잡은 레닌 ① 레닌은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중단
②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
- (2) 신경제 정책(NEP) ① 배경 : 반혁명 세력과의 내전으로 경제난이 심화
② 내용 :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개인 소유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
- (3) 소련의 결성 :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여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결성
- (4) 스탈린 ①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농장을 집단화하는 등,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②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소련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

• 사회주의의 확산과 코민테른

- (1)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혁명 발생
- (2) 레닌은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을 조직해 유럽의 혁명 운동을 지원
- (3) 그 결과, 프랑스·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이 결성됐고, 영국에서는 노동당 내각이 성립
- (4) 코민테른은 식민지 해방 운동도 지원하여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당이 결성 (이들에 의해 아시아에서 반제운동 확산)

러시아 현대사의 흐름

1905년 혁명 (피의 일요일 사건)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2월 혁명	10월 혁명	코민테른 결성	소련 결성	스탈린의 집권
-------------------------	-----------------	-------	--------	---------	-------	---------

3.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파리강화회의 개최 (전후: after war)
- (2) 파리강화회의(1919)
 - ① 원칙 :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조 원칙(민족 자결주의와 국제기구 창설 등의 내용)을 기초로 진행
 - ② 결과 : 승전국, 패전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
 - ③ 베르사유 조약 : 독일의 영토 축소, 식민지 대부분 상실, 군대 보유 제한, 막대한 배상금 지출
 - ④ 승전국은 다른 패전국과도 개별적으로 강화 조약을 맺어 영토와 배상금을 강요
⇒ 베르사유 체제 :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마련된 새로운 국제질서
- (3) 베르사유 체제의 영향 ① 패전국 독일의 힘이 약화되고, 승전국이었지만 전쟁의 피해가 컸던 영국·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도 약화
② 미국은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게 됨 (전쟁 피해 적고, 석유 무기를 많이 팔아 부유해짐)

〈베르사유 조약〉

-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게 넘긴다.
-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한다.
- 독일은 중국에 관한 모든 특권을 일본에 넘긴다.
- 독일 육군은 지원병 제도로만 유지한다.
- 독일은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우선 지불한다.

〈민족 자결주의〉

모든 식민지 문제는 식민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평무사하고 자유롭게 처리되도록 한다.
-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 -

• 국제연맹과 군비축소

- (1) 국제연맹(1920)
 - ① 파리강화회의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창설된 기구 (최초의 국제기구)
 - ② 경제적 제재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비 축소 등을 합의
 - ③ 한계 : 독일·소련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이 의회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함
: 침략국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었음
- (2) 워싱턴회의(1921~1922) : 해군 함선의 수량 제한·폐기, 해군 함선의 무기 제한, 독가스 사용 금지 등을 합의 (군비 축소)
- (3) 부전조약(1928) : 미국·프랑스가 체결한 것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그러나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함

- (2) 자유주의 사상 +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지만 전제정치의 억압은 오히려 심화
- (3) 러일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민중의 불만도 고조
- (4) 1905년 혁명 ①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제 정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 전개
② 군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 발생 (피의 일요일 사건)
- (5) 그 결과, 입헌 정치 ·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어 차르는 헌법 제정 · 의회 설치를 약속
⇒ 그러나 별 성과 없이 제1차 세계 대전으로 개혁은 중단

• 2월 혁명

- (1)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러시아에서 많은 인명 피해 + 심각한 경제난 발생 → 1917년 2월, 러시아의 노동자·병사가 중심이 되어 봉기
- (2) 이들은 소비에트(노동자 병사 대표자 회의)를 조직하여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임시 정부를 수립 (1917.2.)

• 10월 혁명

- (1) 임시 정부는 민중의 뜻과는 달리 전쟁을 지속
- (2)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통해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혁명정부를 수립 (1917.10)

4. 아시아 지역의 민족 운동

• 동아시아 민족 운동

- (1) 한국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발표된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어 3·1운동이 전개(1919) →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 (2) 중국
 - ① 신해혁명 이후 군벌이 난립해 혼란했던 상황
 - ② 신문화 운동(1917~1921) : 지식인들이 유교를 비판하고, 과학 · 민주주의를 주장
 - ③ 일본의 21개조 요구 :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일본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
↳ 승전국들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요구를 인정하자, 중국인들은 5·4운동을 전개 (1919)
 - ④ 5·4운동의 영향 :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고,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 ⑤ 제1차 국공합작 : 쑨원의 노력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군벌 타도를 위해 힘을 합침 (1924)
: 분열 =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군벌 세력을 무너뜨리는 국민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국민당 정부 수립
 - ⑥ 제2차 국공합작 : 1930년대, 일본이 계속 중국을 침략하자 힘을 합쳐 항일 투쟁에 나서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대
: 이에 국민당, 공산당은 다시 연합하여 항일 투쟁에 나섬 (1937)

•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 (1)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인도 : 자치권을 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영국 정부에 협력
- (2) 그러나 전쟁 이후 영국이 오히려 탄압을 강화
 - ① 간디 : 비폭력·불복종 운동으로 영국에 저항 (소금 행진. “폭력 투쟁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인도 독립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 ② 네루 :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인도독립동맹 결성 (파업, 투쟁적 운동을 전개)
⇒ 결국 영국 정부는 인도의 자치권을 일부 허용
- (3) 동남아시아
 - ① 베트남 : 독립 보장을 조건으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
: 그러나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고 민족 운동을 주도
 - ② 인도네시아 :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하고 네덜란드 지배에 맞서 민족 운동을 전개

•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 (1) 오스만 제국 :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후, 많은 영토를 잃고 연합국의 내정 간섭을 받음
- (2) 무스타파 케말 ① 이에 반발하여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923)
② 근대화 추진 :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 남녀평등권 도입, 튀르키예 문자 제정
- (3) 아랍인과 유대인 갈등의 원인 : 영국이 제1차 세계 대전 지원을 조건으로 아랍인에게서는 맥마흔 서한, 유대인에게서는 벨푸어 서한으로 독립 약속



산둥 반도의 위치



일본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침략

• 민주주의의 발전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

- ① 독일 :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1918)
- ②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에서도 전제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화정 수립
- ③ 식민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에서도 새롭게 독립한 후 대부분 공화정에 입각한 민주주의 채택

(2) 시민 지위 향상

- ①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 제거
- ②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하는 보통 선거가 확대

• 노동자의 권리 강화

(1) 1889년 :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5월 1일이 메이데이(노동절)로 결정됨

(2)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 여성 참정권의 확대

(1) 여성 참정권 운동 : 영국, 미국에서 먼저 주도

(2) 여성 운동가의 운동 방식 : 시위, 단식 투쟁, 사회주의자들과의 연대 등

(3) 총력전 :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전쟁터로 떠난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군수 물자 생산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확대
: 여성이 전쟁에 기여한 역할이 인정되면서, 여성의 참정권은 여러 나라로 확대

V.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2.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

1. 대공황의 발생과 전체주의의 등장

• 대공황의 발생

- (1) 대공황의 배경 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1920년대 들어 유럽 경제도 차츰 회복
②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에 비해 소비가 늘어나지 않자,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고가 쌓임
- (2) 대공황의 발생 ① 이후 주가가 대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대공황 발생 (1929)
② 그 결과 많은 은행, 기업, 공장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급증
③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가격도 폭락
- (3) 대공황의 여파 ①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경제 위기가 확산
②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혼란과 불안이 급증

• 대공황의 극복 노력

(1) 뉴딜 정책 :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 (1933)

- ① 내용 - 국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개입하고 생산을 조절
 -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 (댐, 도로, 항만 등 건설로 일자리 창출)
 -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구매력을 향상하고자 노력 (실업자에게 급여 지급, 노인 연금 지급 등)
- ② 노동자의 권리 향상 - 와그너법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 (1935)
 - 최저 임금제도, 주 40시간 근로제도 등 도입

(2) 블록 경제 : 미국, 영국, 프랑스는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블록 경제를 실시

- ① 내용 - 이들 국가는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팔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 무역 체제를 강화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

• **전체주의의 등장**

(1)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 ①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22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전체주의(**파시즘**)가 시작
- ② 전체주의 : “민족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대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개인<전체)”
- ③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전체주의를 강화

(2) **독일의 전체주의**

- ① 독일의 상황 : 베르사유 조약으로 많은 배상금을 지불한 독일은,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를 맞음
- ② 이후 나치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히틀러는 독재 체제를 수립(**나치즘**)
- ③ 나치당 : 비밀경찰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유대인을 탄압

(3) **일본의 전체주의**

- ① 대공황 이후, 군부 세력이 군국주의를 주도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킴(1931)
- ② **군국주의** :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고로 삼는 정치 체제
- ③ 이후 일본은 국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엄격히 통제

• **전체주의의 팽창**

- (1)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며 대외 침략에 적극적으로 나섬
- (2) 이탈리아 : 에티오피아 침략
- (3) 독일 :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병합
- (4) 일본 : 중일전쟁(1937)을 일으킴
- (5) 방공협정(1936) : 독일, 일본이 코민테른·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방공협정 체결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의미)
→ 여기에 이탈리아가 참여하면서 추축국 성립

<p>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 무솔리니, 『파시즘 독트린』 -</p>	<p>첫째, 우리 독일 민족은 희망도 질서도 없는 국제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하며, 열광적인 민족주의에 의해서 단호하고도 열정적으로 재조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p> <p>셋째, 우리는 외부의 도움에 대한 가련한 믿음, 다시 말해서 민족들 사이에 화해하든가 세계 평화 또는 국제 연맹이나 국제적 연대 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할 것이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근절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히틀러의 연설 중 -</p>
<p>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차욕일 뿐이며, 오히려 아이를 낳는 일을 단념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히틀러, 『나의 투쟁』 -</p>	

2. 제2차 세계 대전

•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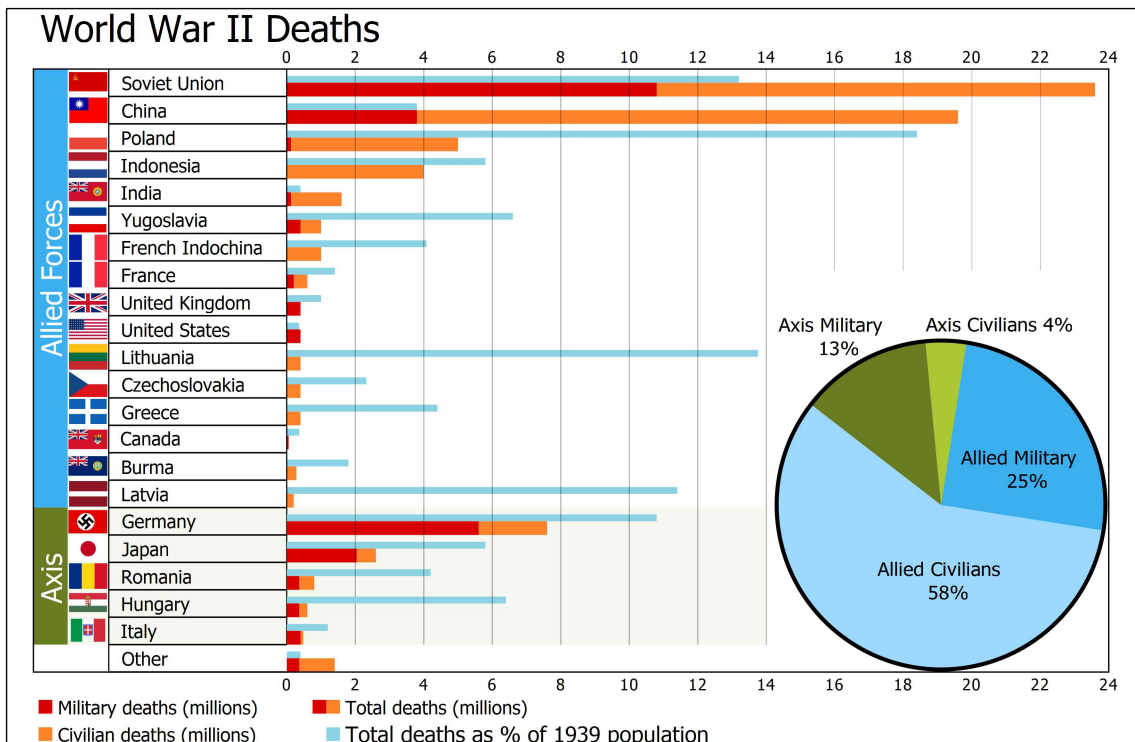
- (1) 독-소불가침조약 : 1939년, 독일과 소련은 비밀리에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은 후 폴란드 침공 (폴란드 절반씩 소유)
- (2) 이에 맞서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생
- (3) 태평양 전쟁 ①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
 - ② 미국은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 정책을 실시
 - ③ 일본은 이에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미국도 세계 대전에 참전

•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 (1) 독일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연합국을 상대로 수차례 승리를 거두고,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
- (2) 프랑스의 드골은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항전을 지속
- (3)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한 독일은, 무차별 공습으로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시도하지만, 영국 처칠 정부가 끈질기게 저항
- (4) 독-소불가침조약 파기 ① 독일은 식량과 석유 확보를 위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략
 - ② 독일은 모스크바 가까이 진출했으나, 소련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 (1) 유럽에서의 전쟁 : 1942년 말부터는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
 - ① 소련 :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에게 승리 (1942.9. ~ 1943. 2.)
 - ② 미국-영국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한 후, 이탈리아로 진격하여 무솔리니 정권 붕괴
 - ③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프랑스 해방
 - ④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자,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독일은 항복 (1945.5.)
- (2) 태평양 전쟁
 - ① 미드웨이 해전(1942.6.) 이후 승기를 잡은 미국이 일본 본토까지 공습하였고, 중국도 일본에게 끈질기게 저항
 - ② 이후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미국이 두 차례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 선언 (1945.8.)
- (3) 이로써 연합국의 승리로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



3.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

•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

- (1) 제2차 세계 대전은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이 훨씬 많은 전쟁 : 전쟁 중 전염병·기아가 발생하고, 대도시 공습, 집단 학살 등이 자행되었기 때문
- (2) 홀로코스트 ①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1,100만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하고, 특히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희생시킨 것
② 슬라브인, 집시 등 소수민족과 장애인·정치범 등도 희생됨 (아우슈비츠 수용소)
- (3) 난징대학살 : 중일 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중국군에 대한 보복으로 일으킨 학살 (약 30만 명의 중국 민간인 학살)
- (4)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
- (5) 미국의 원자 폭탄 개발과 일본 투하 :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

<p>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p> <p>독일의 나치 정권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 유대인을 가두고, 가스실에서 학살하였다. 결국 아무 죄 없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이유도 모른 채 학살되었다.</p>  <p>수용소의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p>	<p>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p> <p>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중일 전쟁 중 난징 대학살이라는 전쟁 범죄를 벌였다.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수만 명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였다.</p>  <p>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p>
<p>전후 독일 정부의 태도</p> <p>독일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철저히 처벌되었다. 또한 1970년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에서 무릎을 꿇은 이후 독일 총리들은 대부분 홀로코스트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p>  <p>뉘른베르크 군사 재판 독일 총리의 추모</p>	<p>전후 일본 정부의 태도</p> <p>일본은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고 부인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리와 정치가들이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을 한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p>  <p>도쿄 군사 재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p>

• 평화를 위한 노력

- (1) 대서양 헌장(1941) : 전쟁 이후의 평화 원칙을 발표
- (2) 카이로 회담,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 : 전후 처리 문제 논의 (한국의 독립 논의, 일본에 무조건 항복 요구 등 결정)
- (3)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 나치당의 전범을 처벌 ⇒ 전쟁 중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문책
- (4) 도쿄 군사재판 : 태평양 전쟁의 전범을 처벌

• 국제 연합 결성

- (1) 제2차 세계 대전의 잔혹함과 피해는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높임
- (2) 국제 연합(UN) 결성 : 국제 평화, 안전 보장, 국제 우호 증진 등을 목표로 결성 (1945)
- (3) 국제 연맹과의 차이 : 국제 연합군, 평화 유지군 등 국제 분쟁을 억제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
- (4) 국제 연합의 한계 : 미국·소련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일부 국가들이 국제 연합의 결정을 무시하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함



1. 냉전 체제와 제3 세계의 형성

- 냉전 체제의 형성

- | 진영 | 자본주의 진영 | 공산주의 진영 |
|-------|-------------------|------------------------|
| 중심 국가 | 미국 | 소련 |
| 경제 | 마셜 계획 (서유럽 경제 지원) |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코메콘) |
| 군사 |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


(1) 베를린 봉쇄 (1948) : 마영 프가 독일의 서베를린 지역을 통합하자, 동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이,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통로를 봉쇄
: 베를린 봉쇄는 이후 해제됐지만,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는 계기로 작용 (1961 : 베를린 장벽 설치)

(2) 쿠바 미사일 위기 (1962) ①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 (쿠바 : 공산주의 국가)
②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쿠바 해상을 봉쇄
③ 이때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면서 국제적 긴장도 고조됨

동/서독일 & 동/서베를린 지역의 분할	쿠바의 위치
 <p>동/서독일 & 동/서베를린 지역의 분할</p>	 <p>쿠바의 위치</p>

• 아시아로 확산된 냉전

(1) 중국 : 국민당 vs 공산당 내전 발생 ('국공내전', 1946~1950)

- ① 토지 개혁을 주장한 공산당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여 승리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②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밀려남 (타이완 정식 국호 : 중화민국 )

(2) 한국 : 냉전의 영향으로 남-북으로 분단. 이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 발생 (1950~1953)

- 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의 양상 (한국-유엔군 vs 북한-중국군)
- ②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냉전은 더욱 심화

(3) 베트남 :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 전쟁을 벌임 (1946~1954)

- ① 결과 : 프랑스가 물러났으나, 베트남은 북부의 공산주의 정권 - 남부의 반공 정권으로 나뉘게 됨
- ② 베트남 전쟁 (1960~1975) :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여 북베트남과 싸웠으나 철수하고, 결국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 통일

2. 아시아 아프리카의 새로운 국가 건설

• 아시아 여러 국가의 독립

-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승전국에 맞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
- (2) 인도 :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종교적 차이로 인해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
- (3)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독립
- (4) 서아시아 : 시리아, 요르단 등이 독립

• 아프리카의 새로운 국가 건설

- (1) 리비아의 독립(1951)을 시작으로, 튀니지 등 많은 국가가 독립
- (2) 아프리카의 해 (1960) : 17개국이 독립
- (3) 이집트 : 나세르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1952), 영국 영향 아래 있던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포
- (4) 치열한 항쟁 끝에 승인받은 독립
 - ① 알제리 : 8년에 걸친 전쟁을 치른 끝에 프랑스로부터 독립 (1954~1962)
 - ② 케냐도 무력 항쟁을 통해 독립 (1963)

• 제3 세계의 등장

- (1) 제3 세계 :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운 국가들
- (2) 평화 5원칙 : 인도의 네루,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발표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 (3) 평화 10원칙 :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29개국 대표가 모여 회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반등 회의)
- (4) 제1차 비동맹 회의 :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 나세르가 비동맹 국가 사이의 결속을 다짐)

평화 5원칙	반등 회의의 평화 10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 ○ 상호 불가침 ○ 내정 불간섭 ○ 호혜 평등 ○ 평화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인권과 국제 연합 헌장 존중 ○ 영토·주권의 보전 존중 ○ 인류와 국가 간의 평등 ○ 내정 불간섭 ○ 단독·집단의 자위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방위 배제 ○ 무력 침공 부정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상호 이익·협력 촉진 ○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VI.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2. 세계화와 경제 통합

1.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 개방

• 냉전 체제의 완화

- (1) 스탈린 사망 이후, 미국-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는 변화의 조짐을 보임
- (2) 스탈린에 이어 소련을 이끈 흐루쇼프는 미국을 방문해 화해를 모색
- (3) 평화 공존의 분위기
 - ① 닉슨 독트린(1969) : 베트남 전쟁 중, 미국은 군사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한다는 원칙을 발표
 - ②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
 - ③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제한협상'을 벌이며 탈냉전의 시대 시작

• 소련의 해체

- (1) 고르바초프 ① 계획 경제와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
 ② 개혁(페레스트로이카) ·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주장하며 시장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려 함
- (2) 이 과정에서 소련 내의 각 공화국에서 민족 독립의 움직임이 발생
- (3) 이로써 소련은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결성되었으며(1991),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체제를 수용

•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 (1) 소련의 개혁·개방은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 : 폴란드의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개혁을 실시
- (2) 독일 : 냉전 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서독이 통일(1990).

• 아시아 사회주의 정권의 변화

-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의 정책
 - 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
 - ② 대약진 운동 : 1950년대 말, 인민공사 설립을 통해 농촌의 집단화 실시 → 그러나 무리한 계획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실패
 - ③ 문화 대혁명 : 1960년대에 일어나 마오쩌둥의 사상을 강조하고, 중국의 전통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한 운동. 이로써 큰 혼란에 빠짐
- (2) 덩샤오핑 : 1970년대 말에 실권을 잡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룸
- (3) 베트남 ① 소련을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 추진
 ②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1986년부터 도이머이 정책을 펼쳐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과 같은 국가가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 즉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평화롭게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을 들여오고 경제특구를 만들어 뛰어난 기술과 설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는 개혁·개방이 필요하고, 인민도 이 정책을 좋아합니다. 누구든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